도반·후학들이 회고한 '원력의 화신' 녹원 스님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 영허녹원
유철주 지음
조계종출판사 / 3만2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허 녹원 스님(1928~2017)에 대해 사람들은 '원력의 화신'이라고 말한다. 조계종단 정화불사에 앞장섰고, 피폐했던 직지사를 교육과 수행의 도량으로 일신시켰다.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추대된 후에는 종단 안정화와 함께 다양한 포교불사를 일으켜 많은 대중을 불교에 귀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인재불사에 불교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한 녹원 스님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불교는 약국 하나 만들기 어렵다'는 세간의 평가에도 보란 듯이 종합병원을 건립해 불교의 역량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오로지 신심(信心)과 공심(公心), 원력(願力)으로 종단과 동국대, 직지사를 일군 녹원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지금도 녹원 스님을 배울 점이 많았던 도반이자 제자에겐 추상같이 엄했지만, 재가불자들에겐 누구보다 자비로웠던 스승, 매사에 철두철미했던 수행자로 기억했다.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들의 인연담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녹원스님문도회는 녹원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추모 인터뷰집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 영허 녹원(暎虛綠園)〉을 펴냈다. 이 책은 평생 도반 도원 스님(前조계종 원로의장)을 비롯한 대중들과 혜창 스님(문경 김룡사 회주), 법등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출·재가자 27명이 기억하는 '수행자 녹원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 인터뷰는 유철주 작가(도반HC 기획콘텐츠실장)가 맡았다.

9월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책을 기획했던 녹원 스님의 손상좌 묘장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은 발간 취지에 대해서 스님에 대한 다양한 추억을 묶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묘장 스님은 "녹원 스님께서 원적 후 여러 분들에게 스님을 기억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각자의 추억들을 나누고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모 인터뷰집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 제목 중 일부인 '허공에 가득한 깨달음'에 대해 묘장 스님은 "노스님께서 〈원각경〉에 있는 '가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나타난 것이다(無邊虛空 覺所顯發)'는 말씀을 좋아하셨다.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 깨달음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부처의 삶'이라고 강조하셔서 제목을 이와 같이 지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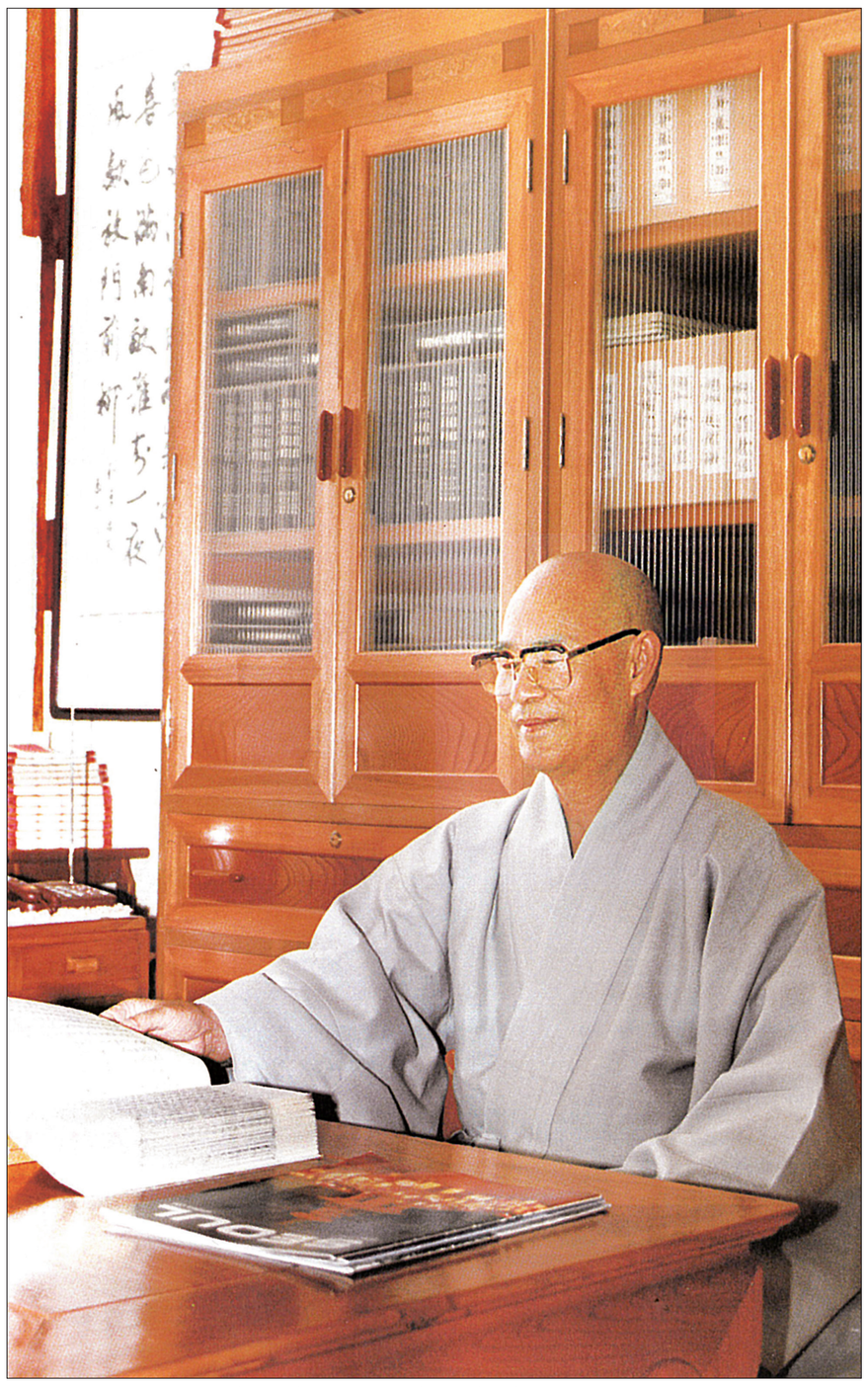
이번 책에는 녹원 스님의 정화불사 참여, 김천 직지사 중창불사,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 종단 행정 참여,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동국대 이사장 취임, 동국대 일산병원 건립불사 등에 함께 했던 출재가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한 도반과 후학,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녹원 스님의 면목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정 스님이 직접 작성한 녹원 스님에 대한 글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자들이 간직하고 있는 녹원 스님의 가르침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결국 후학들에게 지남(指南)이 되기 때문이다.

녹원 스님과 인연을 맺었던
27명 출·재가자 회고담들
유철주 작가가 인터뷰 엮어

오로지 신심, 공심, 원력으로
종단, 동국대, 직지사 일신한
녹원 스님 원력 면면 확인해



평소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녹원 스님은 항상 책을 가까이했다.

이젠 종단 원로가 돼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스님은 스승 녹원 스님에게 받은 세 가지 가르침을 지금까지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고 있다.

"저는 큰스님께 받은 세 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은 명분이 없는 행동은 일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가르침은 삼보정재를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 가르침은 공금과 개인 돈을 혼용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결국 애종심(愛宗心) 혹은 애사심(愛寺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스님의 애종심, 애사심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항상 불교와 종단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포교와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 법등 스님

가장 오랫동안 녹원 스님을 시봉한 시자 장명 스님(직지사 주지)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큰스님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따라가도 저는 성공한 삶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큰스님 같은 분은 결코 없었습니다.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보아도 흔한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스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을 참고하면, 큰스님의 열정과 원력(願力), 신심(信心)으로 산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스님을 만나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 장명 스님

녹원 스님의 유발상좌로 잘 알려진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스승 녹원 스님이 그에게 전했던 '공(公)'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위공무사몽역한(爲公無私夢亦閑)'이라고 하잖아요. 공을 위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니 꿈조차 한가롭다는 말입니다. 큰스님 당신에게 '개인'은 없었습니다. 항상 불교와 대한민국만 있었어요. 인사드리러 갈 때마다 나눴던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 역시 공(公)이 중심이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저는 지금도 큰스님의 이 당부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추상같은 스승이었고, 누구에게는 자애로운 안식처였으며, 또한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지남이 됐던 녹원 스님. 27명의 인연담 속에는 한국과 한국불교를 위해 헌신했던 선지식의 삶이 생생히 녹아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도원 스님은 "한암 스님을 만나고 '이런 도인이 없다' 생각했는데, 녹원 스님 옆에 있어 보니 또 '이만한 스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스님 모두 수행자의 본분을 철저히 지킨 분들이다."고 강조했다.

"배도원의 선지식(善知識)은 오녹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녹원 스님을 닮으라고 제 상좌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인사 오는 모든 스님들한테도 말합니다. 더 말하는 것은 사족입니다." – 도원 스님, 73p

"녹원 스님은 아주 반듯했던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반듯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돼요. 반듯하다는 것은 계(戒)를 지키고 바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 종무행정을 매우 잘 알았어요. 일을 할 줄 아는 분이죠. 녹원 스님이 총무원장을 한 뒤 소임자들도 임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물처럼 살았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물은 무슨 욕심이 없습니다. 녹원 스님도 물 흐르듯 소임을 보고 또 일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밀운 스님, 88p

"깔끔하신 어른이죠. 군더더기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얼렁뚱땅' 같은 말은 녹원 스님에게서 상상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예리했습니다. 특히 일을 꿰뚫어 보는 판단력이 정확했어요.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장, 총무원장 등을 하시면서 녹원 스님의 이런 장점은 더 극대화되었다고 봅니다. 정화불사때에도 어른스님들이 녹원 스님의 총명함을 많이 예뻐했다고 들었습니다. 녹원 스님은 정말 이사(理事)를 겸비한 종장(宗匠) 중의 종장이셨습니다." – 법산 스님, 144p

"녹원 큰스님은 제가 만난 스님 중 가장 훌륭하시고 의지가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조계종에 저런 스님이 계셨구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법문을 듣는데,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심장이 떨릴 정도의 환희심을 느꼈어요. 그렇게 법문을 잘하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큰스님은 법문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實行)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종단, 직지사, 동국대, 청암사에서 큰스님은 직접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 지형 스님, 370p

"유부위여(有孚威如)라고 하지요. 표정은 근엄하면서 가슴에는 따뜻한 정을 간직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큰스님이 딱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셨어요.

인사를 드리면 언제나 밝고 편안한 모습으로 맞아주셨습니다. 또 내공이 대단한 수행자이자 탁월한 행정가로 기억합니다. 큰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을 훌륭하게 회향하신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이 없었다면 그 큰일들을 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 김종빈 前검찰총장, 398p

한국불교의 두 큰 스승이 전하는 깊고도 맑은 불교의 가르침!

간화선(看話禪)의 진수,
조주록(趙州錄)!

학산 대원 대종사의 강설로 만나는 고준한 선(禪)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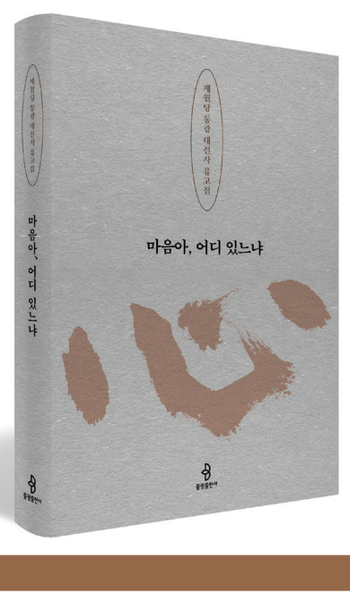


상696쪽
하816쪽
양장본
각 60,000원

삶의 끝자락에서 꾹꾹 눌러 쓴
깨달음의 문장!

제월 통광 대선사의 사부대중을 향한 마지막 당부!

마음아, 어디 있느냐



312쪽
양장본
2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